의상 조사 1400주년 맞아 '화합' 한마당

범어사, 10월 17일 산사음악회
국악 · 7080 어우러진 축제의 장
어린이합창단 · 명창 공연 등 다채
난치병 어린이돕기에 500만원도
10월 27일까지 '독립' 주제 전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는 의상 조사 탄신 1400주년을 맞아 10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사음악회 '국악과 7080의 만남'을 개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음악으로 전하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의상 조사 탄신 1400주년을 맞아 10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사음악회 '국악과 7080의 만남'을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의상 조사의 원융사상과 범어사의 자비정신을 펼치는 문화공연으로,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지역사회 나눔을 함께 담는 자리로 열렸다.

음악회는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격려사와 주지 정오 스님의 인사말, 범어사 신도회장 이윤희 회장의 축사로 막이 올랐다. 이어진 첫 무대는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이 '달팽이의 하루', '이웃집 토토로'를 선보이며 맑은 음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열었다.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은 공연 직후 정필윤 지휘자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천진불 어린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했다. 이어 판소리 신예 나하은과 국악인 박성희 명창이 '화조도', '배 띄워라' 등 다채로운 전통음악 무대를 펼쳐 감동을 더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난치병 어린이돕기 기금 전달식'도 열려 정오 스님이 이창환 한국불자가수협회장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불자가수협회는 범어사 일주문 앞에서 주말 버스킹 공연을 이어가며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후 열린 7080 무대에서는 팝페라 가수 박가을이 '별을 캐는 밤', '아름다운 나라'를 불렀고, 가수 배종원은 '사랑만 남기고', '시절인연'을 열창했다. 우순실은 '잃어버린 우산', '꼬깃꼬깃 해진 편지'로 추억을 불러일으켰으며, 양하영 밴드는 '갯바위', '가슴앓이'로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그룹 건아들의 이창환 회장이 '젊은 미소', '이젠 안녕'을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정여 스님은 "올가을 범어사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히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금정산 자락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듯, 우리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가을의 고요함을 느껴 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통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이 고장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가 부처님의 자비심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전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오 스님은 "오늘은 의상 조사 탄신 1400주년과 범어사 개산 1347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국악과 7080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금정산의 맑은 기운 속에서 쉼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과 평화를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범어사 독립문화제 사진전을 개막했다. 개막식은 10월 16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1층 중정에서 열렸으며, 전시는 10월 27일까지 이어졌다. '연(連): 범어사, 독립과 평화를 잇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현대의 평화에 이르는 범어사의 근현대사를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높이 11m의 초대형 태극기 설치미술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주지 정오 스님이 직접 색을 칠한 검은색 태극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의미'가 담겼다.

부산 마하사, 황령산 유원지 수용재결 '승소'

문체부 동의 누락, 절차 중대 하자
36년 사찰림 지위, 법원서 재확인
문화유산 보호 우선, 개발논리 제동


마하사 전경.

부산 마하사(주지 대방 스님)가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없는 수용재결은 중대한 하자"라는 법원 판결로 부산시가 추진해 온 관광개발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0월 17일 마하사가 부산시·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 및 수용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재결은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무효로 확정됐다.

쟁점이 된 마하사 사찰림은 1989년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경내지'로 지정된 구역이다. 이후 명칭은 '전통사찰보존지'로 바뀌었으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법원은 △부산시가 1996년 해당 토지를 전통사찰 경내지로 인정해 비과세 처리한 사실 △사찰과 약 300m 거리의 지리적 연속성 △36년간의 관리·보존 기록 등을 근거로 사찰림의 역사적·공간적 일체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마하사 소유 사찰림 5개 필지의 강제수용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동일 구역 내 다른 필지 역시 같은 사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하사 주지 대방 스님은 "전통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분별한 개발논리를 넘어선 사법부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령산은 부산 불교의 상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2020년 황령산 유원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안을 공고하고, 2021년 대림건설·롯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5층 전망대와 539m 길이의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해 왔다. 개발사업 부지에 마하사 사찰림이 포함되었으나 수용재결 과정에서 문체부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사찰림에 대한 강제수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곡하모니, 부산파라미타 합창제 대상

10월 19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문체부장관상 · 500만원 수여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오 스님, 회장 백명숙)가 10월 1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곡하모니(부곡여중)가 대상을 수상하며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지도교사상으로 부산교육감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사진〉

금상은 선화합창단(선화여중)이, 은상은 옥샘하모니(동래여중)가, 동상은 더블 에스(서면중)와 Brillante(동주여고)가 각각 수상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청소년들은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지만, 진정 멋진 인생은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합창제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완성한 행복한 이야기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수줍은 야생화와 시원한 숲의 향기, 함께 오르는 이들의 웃음과 격려가 있다"며 "이 합창제는 바로 그 '함께함의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격려사에서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더위와 태풍을 이겨내 가을의 열매로 돌아오듯, 오늘의 무대는 청소년들의 노력과 인내의 결실"이라며 "혼자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되살려 준 이번 합창제는 그 어느 음악회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발원사, 제4차 수륙무차평등대재 봉행

국가안녕 · 시민화합 발원



부산 발원사(주지 호법 스님)가 10월 16일 경내에서 '제4차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봉행하고, 국가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환영사 △격려사 △축사 △극락왕생발원 음성공양 △헌화 △영가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봉행위원장이자 주지인 호법 스님은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육지와 바다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친 모든 영가에게 부처님의 법을 베풀어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대재"라며 "오늘 인연 닿은 모든 분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축학원 해동고, 교직원 불교연수 봉행

현덕 스님 "학생, 부처로 보라"



부산 해동고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법인 영축학원(이사장 현덕 스님, 통도사 주지)은 10월 20일 해동고 교내 해동법당에서 '불교와 교육적 가치'를 주제로 교직원 불교연수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석에는 유원규 교감과 안정수 교법사를 비롯한 교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덕 스님은 "교직은 수천 배의 인욕 수행이 필요한 자리"라며 "화가 치밀 때 한 순간의 인욕이 곧 마음공부이며, 그 속에서 교육의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5년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
2025.
11.02. 일요일
11.14. 금요일
• 2025년 11월 02일(일) 10: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 B구역
• 2025년 11월 14일(금) 10:30 ~ 16:0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IF ZONE
• 주최/주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 참가비: 무료
주요 프로그램
디지털 마음진단 체험- 뇌파, 맥파 등을 실시간 측정 및 VR명상체험
대화형 AI심리상담 체험 - AI키오스크 감정 입력 및 심리검사 진행, 개인 맞춤형 명상(5분) 제공
AI 미디어아트 체험 - 김원화 작가의 〈인간의 거울〉 전시관람
dongguk UNIVERSITY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